

교(鄕校)에 추천 하였고, 호남(湖南) 향교(鄕校)와 성균관(成均館)까지 상신되었던 바 열녀로써의 교지가 내렸다. 후손들은 해방되던 해

(1945년)에 현 위치(원마)에 열녀각을 세우고 후세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향토 문화

전설(傳說)과 설화(說話)

編輯者

■ 入島祖)에 관한 說話

원래 팔금(八禽)의 본토(本土)는 원산을 중심으로 하여 서근, 장목리가 섬 하나였고, 띠섬, 거문도, 매도, 고산, 거사도, 백지도와 읍리를 중심으로 한 닭메산 자락을 본섬으로 하여 살펴보면 전부 여덟 개의 섬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한 자연 속에 여덟 개의 숫자 팔(八)과 새의 금(禽)자를 합하여 '팔금(八禽)'이라 불려졌다고 한 통설이 옳은 것 같다.

그러니까 대충 추정하여 팔금의 여

덟 개 섬을 연결하는 원뚝(방조각제)이 구축된 것이 1910년 이후로 본다면, 그 이전의 팔금 모습은 현재 들녘으로 된 논(畓)들은 모두가 개펄이었으며, 논이 있었다면 산골짜기 아래 조성된 웅달배미가 고작이었으리라. 나머지는 산자락이나 야산을 일군 밭(田)이 생계 수단인 원천이었다.

그러므로 밀물 때면 여덟 개의 섬이 완전히 섬으로 변해 교통이 막히고 썰물 때가 되어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노두(露頭-징검다리)를 이용해 통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형태가 조선말까지 계속되었으니 팔금의 근대화의 실상은 불과 1세기 동안의 변모된 현대 팔금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팔금의 옛 이야기 중 한 가지 덧붙인다면 팔금 지픈골(대심리) 동네에는 출입구가 유일하게 남쪽 한 군데만 있고, 세 방면은 산등성이로 둘러 쌓여진 안골로 자연적으로 방풍이 되어 있어 북풍 찬바람이 안 닿는 등 겨울에는 눈이 제일 먼저 녹아 버려 사람 살기에 좋은 최적지이다.

마치 날짐승이 날개를 펴는 형상으로 그림 같이 펼쳐진 닭메산의 정기가 모아진 곳에 동네가 형성되어 있다.

서씨(徐氏) 계보에 의하면 대략 350년 전의 일이었다 한다.

한 번은 대심리의 이천 서씨 한 사람이 오랜만에 닭메산을 오르게 되었다.

정상에 올라 사방의 크고 작은 섬들과 광활한 바위에 펼쳐진 시하 바다를 구경하면서 피로를 달래려고 담뱃대를 꺼내 담배 한 대를 피우는데 동남간 저 멀리 해변 가에서 난데없는 하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가 산을 내려와 연기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

놀랍게도 그곳에는 초막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지를 앓는가.

서씨는 지픈골에 입도해 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미리 입도하여 살고 있었음을 알고 먼 거리 벽지였지만 교우를 자칭하여 서로 왕래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양성(陽城) 이씨(李氏)의 입도조였다.

그가 죽어 진고리 뒷산 자락에 자리한 이른바 명당에 묻혔고, 그 후 손들이 번창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 八禽 金堂山에 얽힌 傳說

팔금(八禽) 땅 중앙부에 또렷하게 자리잡은 하나의 봉우리로 된 닭메산(일명 금강산(金堂山)).

이 산은 이상하게도 더 큰산들이 서쪽에 있는데도 이 산은 팔금의 상징처럼 돼 있다.

왜 일일까? 중앙부에 있어서 일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바로 닭메산이 명산이기 때문이다.

이 산의 시원(始原)에 관한 재미있는 전설(傳說)이 있다.

땅에 물이 생겨나던 창조의 과정에 백두산(白頭山)의 정기를 이어받아 백두대간(白頭大幹)이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다가 영취산(靈鷲山)에

서 서남으로 꺾어져 호남정맥(湖南正脈)이 되어 뻗어 내려와 줄지 부분에서 힘없이 흩뿌려 버린, 그러나 비교적 균형 있게 나누어 놓은 나주군도(羅州群島)의 그림(景觀)은 실제로나 지도상으로나 아름답기 그지 없다.

현재의 행정구획 상으로는 신안군의 중심부에 놓인 면 단위치고는 약간 모자란 듯, 아쉬운 듯한 정삼각형의 섬, 그것이 팔금도이다.

도서 분할의 대역사(大役事)에 참여, 협조하던 암태(岩泰) 박달산(朴達山)에 살던 두 장사가 팔금과 암태 사이의 깊은 골(바다)을 메우고자 어디선가 큰 산 덩이를 운반해 오던 길이었다.

때가 여름철인지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 덩이를 양쪽에서 새끼손가락으로 받쳐들고 팔금 중심부를 막 지나가던 참이었다.

힘이 들었던지, 허리끈이 낡았던지 “툭” 소리를 내며 한(탄소드랑섬 쪽) 장사의 허리끈이 터지면서 흩바지가 흘러 내렸다.

순간 산 덩이를 들고 가던 손을 놓치면서 바지 꽃말을 움켜 쥐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대산두 앞 들녘에서 논일을 하고 있던 한 아낙네가 “저 장사 × 줌 보소! 음매 × 무지무지 크네”하고 소리를 질렀다.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일손을 놓고 허리를 펴고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장사 쪽을 쳐다보았다.

망신을 당한 장사는 성큼성큼 암태도 쪽으로 건너가고 있었다.

이리하려 암태도, 팔금도를 합치려던 군도 중 주도(主島)의 균형적인 분할 작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영원히…….

훗날 사람들은 이 일을 못내 아쉽게 여겨, 그 방정맞은 여인이 소리를 지르던 자리에서 뻘히 올려다 보이는 닭메산 자락에 공동 묘지를 만들어 그녀를 저주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해 큰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쳤고, 또 얼마 후에는 돌립병이 나돌아 많은 사람이 죽어 갔다.

그로부터 이 산을 명산이라 여겨, 가뭄이 든다 거나 돌립병이 발생하거나 하면 산정에 산막을 치고 정성을 들이며 산제를 지내었다고 한다.

이 전설을 뒷받침이나 하듯 암태도 박달산 중턱에는 이 두 장사들이 살던 흔적이 남아 있다.

돌 술과 절구통, 그리고 바위에 소변을 보아 파인 자국 등이 지금도 역연하다고 한다.

이 때 중단된 연도(連島), 아니 연륙(連陸)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1차로 팔금도와 기좌도, 암태도~자은도, 비금도~도초간이 연륙, 연도교로 이어졌고, 팔금도~암태도가 이어질 날도 멀지 않다.

아마도 섬과 섬이 이어졌으면 하는 염원은, 이 창세 당시부터 섬사람(島者)의 염원이었지 않을까?

“정와불가(井蛙不可) 이어해(而語海)-우물 안 개구리가 어찌 바다를 이야기하겠는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 ‘도자(島者)’들의 염원을 반도자(半島者-소위 육지 사람을 가리킴)들이 어찌 헤아리겠는가?

이제 전설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루 빨리 두 장사의 꿈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 黑山 多物島 多村마을 傳說

다촌리(多村里)는 일명 장구 섬이라 한다.

장구가 양쪽을 때리면서 소리를 내는 듯한 곳이 장구 섬으로 양쪽 소리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잘 산다고 전해지고 있다.

■ 黑山 多物島 鶴岩의 傳說

언젠가 한 쌍의 학이 날아와 이 동굴속에서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내 학은 알을 품고 있고, 남편 학은 먹이를 갔다 주기 위해 바다에 나갔다가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 남편 학은 아내 학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다.

아내 학은 남편 학이 돌아오길 기다리다 못해 배가 고파 굶어 죽어서 화석으로 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정월 이 학이 작고, 아위어 보이면 흥년이들며, 학이 크고 살이찌 보이면 흑산도에서 생산된 모든 해산물이 풍년이 든다고 하여 “풍년학”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 飛禽 孝子岩과 팽나무의 傳說

비금도(飛禽島)의 중심산은 선왕산(仙王山-해발 255m)이다.

이 산에 서산사(西山寺)라는 절이 있다.

선왕산 남쪽 능성에는 내월리(內月里) 사람들이 효자암(孝子岩)이라 부르는 바위가 우뚝 솟아 있다.

옛날 이곳에 가난한 어부가 아들을 데리고 살았다.

그는 바다로 고기를 잡이를 나갈

올지 말고 저 산 위에 올라가 아빠 오기를 기다려라'고 달래 놓고 바다를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어부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란을 만나 죽고 말았다.

어머니도 없이 아버지 손에 자라던 이 소년은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선왕산에 올라 수평선을 바라보며, 아버지 배가 돌아 올 것만을 기다렸다.

해가 저물고 바다가 거칠어졌다. 소년은 거칠어지고, 비바람이 불수록 아버지가 그리웠다.

바다를 향해 아빠를 목 메이게 불렀으나 성난 파도 소리 뿐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아이는 아빠를 부르다가 마침내 지쳐 쓰러져 죽었다.

아이가 죽은 그 자리에 바위가 솟아 올랐다.

사람들은 바위를 효자 바위라 부르고 있다.

■ 삼남매와 팽나무의 전설

효자암이 있는 내월리 북쪽에 고서리(古西里) 고막 부락이 있고, 이곳에 백년 가량된 팽나무가 있다.

옛날 이 곳에 자그마한 연못이 있

었다.

이 마을에는 김씨라는 부자가 일찍 부인을 잃고, 어린 삼남매를 기르며 살아갔다.

자식들이 철이 들어가며 효심이 있었던지 새엄마를 맞자고 졸라 19세 된 처녀 계모를 맞아 들였다.

계모는 이듬해 딸을 낳고 김씨는 일이 있어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계모가 살림을 꾸려 나가게 됐다.

처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고 살림을 맡으면서부터 계모는 성품이 변해 가고 있었다.

계모는 이웃 동네 점쟁이를 찾아가 전설 두 딸을 괴롭힐 방도를 가르쳐 주면 후하게 사례하겠다고 약속했다.

점쟁이 노파는 무덤에 난 들메 밀떡을 헤 먹인 뒤 구렁이를 구워 먹이면 처녀의 배가 얘기 뱀 것처럼 불러 오른다고 못된 비방을 가리켜 주었다.

점쟁이 노파와 모의를 한 계모는 어느 날 밤에 전설의 두 딸을 데리고 나가 김을 떼고 있었다.

이 때 이 밭 곁을 점쟁이 노파가 지나가면서 알은체를 했으므로 계모는 이 점쟁이를 불러 "맛있는 것이 있으면 주고 가라"고 말했다.

점쟁이는 미리 약속한대로 구렁이가루를 묻힌 들에 밀떡을 내놓았고 인심 좋게 먹으라고 권했고, 계모는

두 딸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떡을 먹었다.

며칠이 지나자 두 딸 얼굴은 기미가 끼고 애기 뺨 여자처럼 배가 불러왔다.

이 무렵 육지에 나들이 갔던 아버지가 돌아와 이 두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웬일이냐고 물었다.

딸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했으나 계모가 딸들 몰래 그의 남편에게 근래 구역질을 하고 입덧인지 음식을 가리는데다가 배까지 불러오니 예삿일이 아니라고, 딸들에게 부정이 있는 것처럼 꼬아 바쳤다.

이 소리를 들은 김씨는 사색이 되어 필필 뛰었다.

두 딸을 불러다 놓고 정을 통한 남자를 대라고 호통이었다.

딸들은 억울했다.

남자를 접한 일이 없다고 변명했으나 화가 치민 아버지는 가문 망신시키지 말고 나아가 죽어 버리라고 호통을 쳤다. 아버지 앞을 물러난 두 딸은 어굴하지만 이미 계모 따라 아버지 마음까지 변한 이상 이 세상에 살아 무엇하겠냐며 죽기로 작정했다.

두 딸은 마을 앞 연못에 나가 손을 맞잡고 빠져 죽었다.

김씨의 두 딸이 연못에 빠져 죽고부터 밤이면 매일 이 연못에서 두 처녀의 울음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

다.

이 소문은 드디어 나주목사(羅州牧使)의 귀에 전해졌다.

목사는이 괴변은 필시 사연이 있어서 일거라며 육방 관속(六房官屬)을 이끌고 이 마을에 행차해 진상을 조사키로 했다.

밤이 깊어지자 여전히 처녀의 울음소리가 들려 왔으므로 간이 큰 목사는 연못으로 쫓아가 호통을 쳤다.

“이 요망스런 요괴야, 억울한 일이 있거든 말을 하고 차후로 이런 불칙스런 소리를 내지 말라” 그랬더니 한 소녀가 연못 위에 나타나 억울하게 죽은 자매의 원한을 얘기했다.

이튿날 목사는 계모와 접쟁이 노파를 잡아다 곤장을 쳐 자백을 받고 목매어 죽인 뒤 연못물을 퍼내 시체를 건져 장사지내 주었으며, 연못은 매워 버렸다.

이 자리에 홀로 남은 막내 남동생이 두 누나를 생각하며 팽나무를 심어 오늘날까지 살아 있다고 한다.

■ 長山島 토미산 佛像의 傳說

장산도(長山島) 토미산은 그리 높지 않으나 어디서 보아도 밤알처럼 보이며, 산정에 오르면 맑은 인력으로 파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설(傳說)에 의하면 토미산에 사

찰(寺刹)을 건립키 위하여 지반 공사를 하던 중 질학자(地質學者)인 최도선이 통두로 넘어가는 고개의 산세가 이롭지 못하다 하여 도초도(都草島)에 사찰을 건립했다고 한다.

그 후 도창리의 한 노인이 풀을 베러 토미산에 올라갔다가 불상을 발견하여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어느 노파께서 노발대발하며 “화가 미치면 어찌하려고 집에 가지고 왔느냐”고 말해 가지고 온 불상을 보리밭에 버렸다고 한다.

그 때 정씨댁에 머슴살이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찾아가 연유를 물은 다음 봉초(담배) 몇 봉을 사 주고(1봉에 5전) 불상을 가지고 행방을 감추어 버렸는데 뒤늦게 주재소 일본인이 이 소식을 듣고 추적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수배한 결과 머슴은 광주에 올라가 고물상에 20원에 불상을 팔았으며, 고물상에서 100원에 다시 팔아 넘겨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말이 전해 오고 있다.

■ 長山島 足島の 傳説

장산(長山) 마진도리에서 북쪽으로 2km 쯤 가면 죽도(足島) 또는 바리섬이라 불리는 섬이 있다.

옛날 힘이 센 여자가 섬 덩어리를 머리에 이고 물위에 징검 징검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누가 “워따 저 아줌마 보소, 섬을 이고 가네”하고 소리를 쳤다.

깜짝 놀란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섬 덩이를 침병 떨어뜨렸는데 이 섬이 발등과 같이 생겼다 하여 죽도 또는 바리섬이라 부르고 있다.

■ 岩泰 水谷里 壯士 순길의 傳説

마을에서 서북쪽 1.5km 지점 해안선에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이 있는데, 옛날 순길이라는 천하 장사가 이 절벽을 지나가다 발을 헛디더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은 뒤부터 매년 장마가 지면 순길이 혼백이 나타나 호탕한 웃음을 웃어 웃음 소리가 들린다고 전해 오고 있다.

■ 黑山島 피 바위의 傳説

옛날 한 노인이 세상의 혼탁함을 탄식하며 속세를 등진 채 흑산도에 건너와 배낭 기미란 곳에 정착했다.

노인은 고매한 인격을 지녔고, 글과 도를 닦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으며, 아름다운 딸 하나를 데리고 살

았다.

그러던 어느 날 흑산도에는 또 한 사람의 젊은 무사가 무예를 익히고 도를 닦으면서 부도덕한 사회를 바로 잡고자 하는 응지를 품고 있었기에 노인과는 유일한 벗이 되었고, 서로 학문을 하는 처지였다.

그래서 노인의 딸과는 띄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급기야는 서로 사랑 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렇게 평화스럽고 꿈같은 세월이 지나는데 해적들이 침범해 왔던 것이다.

해적 두목은 노인의 딸을 탐냈으며, 젊은 무사와 해적 두목은 내기를 해서 이기는 쪽이 처녀를 차지하기로 하고 내기는 큰돌로 성을 쌓기로 한 것이며, 지는 쪽은 죽음을 당하기로 하였다.

무사는 열심히 성을 쌓았고, 해적 두목도 뒤질세라 부지런히 성을 쌓았지만 끝내는 지쳐서 하는 수 없이 무사의 칼을 받았는데 비록 해적이기는 하나 피끓은 젊은이라 한이 서린 찢자국이 바위에 흘러 내려 바위에 박혔는데 지금도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바윗돌에 찢자국이 어린 것 같이 보인다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 押海島)의 王建과 王望에 얽힌 傳說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고려 태조(高麗 太祖) 왕건(王建)의 작은 아버지인 왕망(王望)이란 사람이 있었다.

왕망은 후삼국(後三國) 혼란(混亂) 시기(時機)의 평정(平定)과 왕건(王建)의 득세에 많은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왕건이 임금인 후 논공(論功)행상(行賞)의 당시 왕망의 공을 무시한 듯 하자 왕망은 임금의 전복을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사(舉事) 전에 기밀이 탄로되자 도망쳐 온 곳이 지금의 압해(押海) 고이(古耳)였다.

왕망은 이곳에 성을 쌓고, 왕의 정치를 폄하며, 언젠가는 고려왕실(高麗王室)에 도전하기 위해 군사 훈련과 세력 확장, 군량미 비축 등 크게 활동했다.

군사 훈련이 시작되면 성안에서 말달리는 소리며, 호령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고, 연기 같은 먼지가 일대를 뒤덮었다 한다.

왕망은 고이도(古耳島) 근해를 지나가던 상선이 나라의 국세를 신고 가던 배를 잡아 식량과 돈(보석)을 빼앗으며, 선원들은 자기 부하로 만

들었다.

불잡은 배는 배시게라는 곳에 버리고, 돈은 돈 바위 밑에 감추었다 한다.

지금도 돈 바위와 배시게는 이 전설에 유래된 곳이다.

배를 버린 곳에는(배시게) 몇 십년 전에도 잔재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왕망은 힘이 장사였으며, 큰 바위를 엮었다, 뒤집었다 할 정도로 힘이 세어 짚고 다니는 지팡이도 돌로 만든 것을 사용했다 한다.

세월이 몇십 년이 흘렀다.

나라에서는 이 지방의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나머지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니 왕망의 정체가 드러났다.

조정에서는 왕망을 잡아 오도록 명하니 많은 군사를 다스린 장수가 왕망을 공격했다.

왕망은 이 때를 위해 힘을 길렀기에 원한의 보복 시기로 생각하고 질풍같이 호령하고 대항하니 군은 일시 파죽지세로 수십 명의 병졸을 잃었으며, 고전했으나 중과 부족으로 왕망의 병졸들은 기력을 잃고 관군에게 투항하거나 도망치고 죽었다.

왕망은 다급하게 도망치다가 바위에 부딪쳐 넘어지니 돌 지팡이까지 떨어뜨린 채 부딪쳐 넘어지니 돌 지팡이를 사람들은 지금도 왕망의 지

팡이라 부른다.

왕망은 계속 도주하여 강 건너 무안군 망운면 두무치의 큰 바위를 들고 자기가 쓰던 도장(印)을 숨겨 두고(지금도 인 바위라 부름) 더 이상 도주할 기력을 잃어 고시라는 곳에 있는 연못에 뛰어들고 말랐다.

뒤를 쫓던 관군들이 연못의 물을 퍼냈으나 왕망의 흔적을 찾을 길이 없고 다만 이상하게 생긴 자라 한 마리를 발견했을 뿐이다.

화가 난 장수는 왕망의 목을 얻지 못하고, 자라의 목을 칼로 내려치니 이상하게도 자라목에서 호른 피가 연못을 가득 채웠다.

지금도 연못의 물이 흐리다고 하며, 이 지역에 왕 무덤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있다.

왕망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으나 그가 살던 흔적은 지금도 1km가 넘는 성과 집터가 남아 있으며, 왕이 살았다 하여 고이도 큰산을 왕산이라 부르고, 음력 정월 보름날이면 이곳에 제를 지냄으로서 풍년과 행운이 오고 병마를 막아낸다고 하여 부정 없는 사람을 선발하여 제를 모셨다.

일제말 우리 나라 지도에 이 섬을 왕도(王島)라 적혀 있었으나 현 고이도(古耳島)는 왕망군이 종적을 감춘 고시(古市)의 옛고자(古字)와 섬의 모양이 사람의 귀와 같다는 사실

에서 귀자(耳字)를 따서 고이도(古耳島)라 불려졌다고 한다.

성터는 그대로 보존되어 신안군의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되었다.

그 뒤 왕족(王族)이라는 사람이 이조(李朝)에 와서 체포되어 함평에서 처형되었는데 함평군내 “고이리”라는 마을에 옛 그 삶의 고적(古蹟)이 아직도 남아 있다.

■ 慈恩島의 영리한 百姓과 원님

그전에는 원님이라고 하면 지금의 군수 같은 분인데 지금도 그렇지마는 원님이 온다고 그러면 아조 질 일이라 한쪽에야 머 한이 없고 가마를 태우고 오고 그렇게 하느니, 그렇게 인자 우리는 부락에서 이 지방입니다.

마 순력을 하게워서 지휘를 하느니 한사람이 꼭 빠졌어요, 다 나왔느니, 그렇게 한사람 목을 꼭 냉게 냐어. 또 그랬느니 냉게 냐느니 그 이튿날 마침 원님 오는 날 가서 나가서 일을 하라고 형께 썩 나가서 일삼 들고 일을 하니께 마침 거그서 원님이 오든 모양인디 원님이 눈에 든다 그말이여. 인자 그사람을 일을 하는 그사람은 모르니께 오다가 묻그등,

“어제 오늘 길 일을 하나?” 그러니께 썩 있다가,

“원님인가 좃인가 온다 함께 길 일인가 좃 일인가 한다고”

그러거든, 아 원님이 들을 때 오직이 그 나브것썩니까?

“에이 요놈을 주리를 썩 틀어서 벌을 썩 주어야 쓰것다”

하고 있는디 아이 와서 저녁밥 묵으로 들어와서 봉께는 그 때 사람이 원님이라고 있그등. 허니까,

“에이 인자는 나는 이미 죽어났다” 그래 이장한테 가 떡 물어서는 이만 저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니 큰 일났다고 그러거든, 이장한테가 큰 일났습니다.

“넌 아침에는 일찍 밥 먹지말고 식전에 와서 나 보고 이장을 부르면서 술 한잔 묵으라고 오라고 한 뒤 을 저녁에 지산가 좃인가 오셨으께 술인가 좃인가 한자 묵으로 오쇼. 그러며는 원님이 듣고 저놈 십간이 저런 것이라고해서 용서해 줄 것이니 그렇게 해라”

대체나 그 이튿날 아침 일찍 가서는 원님 듣게,

“이장님 이장님”하고 부르거든,

“머할라고 부르냐?” 니께,

“지산가 좃인가 모신게 모셨으께 술인가 좃인가 한잔 묵으로 오쇼”

그러거든 원님이 가만히 듣다 봉께 아 저놈이 십관이 불래 일성 그

런가 보다 내 한뼘트라면 저 원명을
일년에 한 번 어뜨게든지 고생 시킬
번 봤다고 그러드랍니다.

■ 慈恩의 거지중과 堤防의 傳説

우리 면 지금 옛날인데요, 저 지
금 제방을 할라고 그랬어요.

그런디 중들이 힘을 모아서 제방
을 수삼차 했어야 늘 터지고 하니가
전시에 옛날이기 때민에 암만 문복
쟁이한테 가서 점을 했등가 봐요.

그러니까 거그는 인육 말하자면
인자숙 넣어만 그 제방이 안터진다.
그래서 인지숙을 널라고 보니까 도
저히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면 사
람으로 널 수가 있겠습니까?

못넣게 못느니까 아 외지에서 인
자 중이 동냥을 오이까 꼬였어요.

꼬여가지고 인자 술을 많이 쥐가
지고 인자 돈도 주고 한다 보니까
인제 동냥도 준 다음에 술을 잔뜩
먹인김에 거그 가서 인제 마침 인제
그 제방허는 데를 인자 건네 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 건네 가는 것을 띠여
놓고 거기를 가니까 그냥 밀어 넣가
지고 인제 제방을 해서 거기가 인자
안터져갖고 있다 그러답니다.

■ 慈恩島의 영리한 애와 도둑놈

인자 능주서 한 분이 살았는데 즈
그 부모 때 마다 부자로 살았드라고
그룹니다.

그랬었는디 저기가 어뜨고 한꿈에
다 없어 버리거 아 인자 즈그 아버
지 삼년 상을 인자 돌아와서 인자
대상을 지넬라 한디 며 아무것도 없
어요.

그래서 참 부자집 끝텅이면 삼년
간다 하드니 아 문서때기를 전부 뒤
져놓고 보니까 어디가 소 한귀가 있
드라요,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안목
을 인자 가서 말한께 아 그거 그래
야고 그라고 말고야고 주더라우 아
그래 장에 갖고가 딱 돌아갖고 오는
데 아 마치 어쁜 사람이 딱 내려오
드니 왜 저렇게 왜듬고개 인자 면장
하는 그런 고개가 같은거 턱 나서서
는,

“너 돈 얼마나 갖고 왔냐? 장에
왔으면 내놔라”

그라거든요. 아 그런데 몸도 부담하
고 먼 말 할 수가 없이 생긴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심으로 해도 못당힐
것 같고, 아 의욕을 중께,

“예 여그 있습니다” 하고 중께는,

“응 잘 갖고 간다고” 딱 담어 가그
등,

“여보쇼, 담어 갖고 가나 내가 당신한테 애원을 한마디 할 말이 있소” 그러니까,

“먼 말이나고 한 번 배보라고”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대상을 지낼라고 앙끝도 없응게 어디 문세를 찾아 봉개 소 한 마리 있어 돌아 갔고 온디 그놈 반절씩 나눴시다 그말이여라우” 아 그랑께,

“안된다. 내가 기우지 내가 남의 것 털어 갖고 간 사람이 내가 너를 주고 털어 갈 수는 없다” 그랑께,

“그라면 당신 주소 성명이나 잔 꺾차주소” 그라거등 이라우,

“응 그건 그라마 내 주소는 큰 물진 뒷이고, 예 성은 발바닥 밑에고, 이름은 삼년, 난 삼년 묵은 여 거시기 삼년상 지낸 찌끄래기다” 그라거등요.

아 인자 떡 그러니께 아이 인자 지사도 못지내고 그대로 뱅배, 예라 이건 나도 같번생이라 이 사람을 꼭 찾아야 쓰것단 말이여.

천상에 아, 이 큰 물진 뒷이랑 하니 어디를 알 수도 없고, 아, 이 성명을 알 수가 없거등요. 그래서 인자 이 사람이 인자 헤메 헤메고 인자 돌아 땡긴디 한 어디를 강께 아 그들이 요새 같으면 대통령이 인자 그 때는 인자 왕이락 해서 인자 왕을 지내고 인자 신하들을 지내고 그

런디 인자 나무를 하로와서 작난을 허거등요.

아 그란디 어 어뜨게 잘못 한다고 어튼 놈 하나를 그랑께 인자 때려서 거그서 행이를 주웠든 것입디다.

그 놈이 울고 앓것서. 그란디 가서,

“아이 참 미안하제만 내가 이런 질문이 한나 있을게 좀 받아 줄래?” 함께,

“그라라고, 한 번 해보라고” 아, 이 그 이야기를 하거등요, 다 모르는 있거등이라우. 그 왕된 그 아이도 모르고 다 그런디 흘쩍흘쩍헌 놈이,

“앙 그런 것도 모른 것이 왕이라고 나를 이 행벌주어?” 아, 이 그라거등요. 아, 이,

“그라면 너는 알 것냐?” “예, 알고 말고라우” 하고,

“어디 니가 한 번 꺾차 주라”

“아 큰 물진디 있으면 평산 아니요. 아 큰 물진디 밀어버렸으니 평편 할때제”

“예 그라면 성은 발바닥 밑에 머시냐?”

“아, 이 신가 아니요. 신가 아니요”

“그래, 그라면 이름은 삼년상 지낸 찌끄래기란디 거 머시것냐?”

“아, 도복 아니요. 그랑께 평산에 가서 신도복이를 찾으쇼”

그러더랍니다.

“에 그래서 아이 그러면 그래야 쓰
것다고 인자 대체 그라니 평산 신씨
라고 그리 합니까? 에 인자 평산을
가니까 아 대체 마을이 머 큰디 머
초집 한나 없고 맨 재와집으로 인디
아 처음 감히 밭 딛기가 애럽거든
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여가 신도복씨가 계시냐?”
그렇게,

“에 저그 가운데 저 집인디 여그
그 뜰 안에가 집이 한 대여섯채 됩
니다.”

아 그러거든요. 하 그런 사람이 도
독질해 목을 것은 천만의원디 그나
저나 찾아 갔어요. 가서는,

“아이 여가 신도복씨 택이냐고?”

그런다고,

“어디서 왔느냐?”

함께,

“에 아무데 이만저만해서 왔는디
아, 이 이러 저러한 일이 있어 왔음
께 내가 사실 네가 소신 것 내가 이
애기를 한다고 그렇게,

“아 그라시냐고 사랑으로 앓즈라
고”

아, 양져서 인자 먹는데 먼 예일하
게 대접상도 잘하고 아, 이런 가란
말도 앓하고 목고만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네가 가야 쓰겠습니다.”

그렇게,

“아, 그럼 그라냐고 내가 꼭 삼년
만이면 산님으로 그 인자 산바람으
로요, 이렇게 잘 살아도 그 것을 여
그 도둑질 한다고?”

“잉 그래서 내 주소를 알고 찾아온
사람은 내가 이자까지 다 해서 준다
고 그란디 주소를 모른 사람은 할
수 없이 자금 곳간에서 돈만 썩쿠고
있다고”

그라드라여. 아, 그래서 아, 이 그
날짜 박아서 이짜 또박 또박하고 노
자하고 옷 한 벌 잘 해주고 보내드
랍니다.

■ 慈恩島 開拓者의 傳說

자은에 개척자가 누구냐 이런 얘깁
니다요.

옛날 그 작은에 에 개척자가 석씨
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석씨는 어떤 분이냐 혈
때 중국과 한국과에 무역상이지요.

말하자면 요새 말로 근디 그 사람
들 직이 직품은 그렇게 높지 앓아
요.

머 양반들에 그 심부름으로 중국
무역을 해가지고 그 이익은 양반들
이 보고 자기들은 인자 아마 거그서
얻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겠지요.

주로 잉 그러나 그 중에 석씨가

참으로 양반인지 아닌지 이것은 어 판단한 길이 없으나 좌우간에 중국을 가는 길에 난파를 해가지고 한운리에다 뒀어요.

한운리 여그 가면 한운리라고 한가 한자, 구름 운자, 한운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다뒀어요. 거기에 와서 보니까 오곡 백화가 자연생 오곡 백화가 무르익고 팽창히 풍요한 땅이 얼마던지 있어라.

그래서 배를 고쳐 가지고 다시 무역하로 가는 걸 포기하고 여기에 정착을 하고, 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거그서 실게 되니까 섬에 있는 가족들을 전부 대려 왔다.

금께 그 사람들이 자은에 에 시조다 그랬는디 지은이라는 이름이 사랑자, 은혜 은 짠데, 이 사랑 자짜, 은혜 은짜라는 자은이란 이름이 붙었느냐.

그 사람들이 어, 그 천지 신명의 이 지혜로운 은혜에 보답해야 것다 해서 자은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런 전설이 전해 내려 오고 있었요.

그러니까 그 때 석씨덜이 거진 떠나고 지금 한가호 사는 가요?

한가호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14대손 그 나머지는 다 떠났고, 그 우에 손들이 지금 여그서 자은에

성씨들이라고는 이씨, 김시, 박씨, 송씨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원 고향이 전부가 한결같이 해남 아니면 영암, 그란 아니면 무안, 나주, 영광, 이 신안군을 중심으로 하는 가장 주변의 군에서 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그 사람들이 시체를 거리 모시로 가요, 그런 것으로 봐서 임진 왜란 후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가 살다가 조상의 묘를 지금도 찾아 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 慈恩島

병영성(일명 설성)의 傳說

태종 십이년에 병영성이 만들어졌어요.

그 때 병영성을 지은 사람이 마친목으라는 목사였는데, 어 저 목사겸 그 병영 병사였어요.

그 삶이 와서 병영성을 지으며는 그냥 허물어지고, 지으며는 허물어지곤 하는데 하루 아침에는 그 꿈을 꾸니까 그 신령이 꿈에 나타나서,

“이 명충헌 놈아! 명충헌 놈아!”
그래가지고,

“내가 계시를 해 났을 터니까 지금 가서 봐라”

그래서 새벽에 에 종자를 데리고 가니까 눈이 왔는데 다 녹아버리고 없는데 조르릉 태가 눈이 얇녹은 데

가 있드란 말이여. 금께 거그를 표
 지를 해 놓고 에 일어나서 그 차리
 에다 아 병을 성을 쌓더니 앓문어졌
 다. 그렇게 부르지요. 눈으로 해서 자

리를 잡았다. 설성 눈으로 해서 자
 리를 잡았다. 금께 설성이라고 지금
 도 불리우는데 병인가면 지금 성터
 가 남아 있습니다.

향토 문화

名 勝 觀 光

編 輯 部

■ 시목(柿木) 해수욕장(海水浴場)

島嶼名	位 置	觀光 資源		資源의 特性 및 名稱
		區 分	個 所	
都草導	全南 新安郡 都草面	기암 해수욕장 식생 무인도	1 1 2 9	문바위 4.0km 해송림, 지생란 명예섬, 사내거리섬, 할미섬, 형제섬, 종달여

도초면(都草面) 오류리 엄목(俺
 木)마을에 있는 시목(柿木) 해수 욕
 장은 그 규모나 자연적 여건이 전국
 에서도 손꼽히는 곳이다. 이 해수
 욕장은 3면이 산과 바다로 마치 병
 풍을 쳐 놓은듯한 포근한 지형에 백
 사장이 4km가 깔려 있고, 물이 맑아
 해수욕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다. 또한 해안 2km에 걸쳐 사방 사업
 을 설성 해 놓고 있으며, 바다 속의
 경사도가 완만하여 위험도가 없다.
 타원형의 길고 넓은 백사장에는 군데

군데 모래성이 쌓아진 것이 특징이
 며, 이곳에서 서서보면 산과 바
 다 풍경이 마치 한폭 의 그림을 감
 상하는 것 같은 환상에 휘말려 들게
 한다. 특히 해수 욕장 바로 앞에는
 농간암(弄奸岩)이라는 바위가 있는
 데 날씨가 흐리면 바위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문
 자 그대로 농간하는 신기한 현상을
 볼 수가 있다.